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해요!



포콜라레
천주교마리아사업회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라?
(시편 27장)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멀리 떨어진 남의 나라에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나 슬프고 힘든 순간에도 하느님께서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억압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도 하느님을 굳게 믿고 의지해요. 그분의 사랑은 결코 지지 않는 태양 같아요.



버나드의 이야기

“같은 반 친구가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 반 모든 친구들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했어요.



주사가 아팠기 때문에 아이들은 전염병에 걸린 친구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나는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도 그 친구에게 화를 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주사를 맞았어요.